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84호 현대불교

29

2012년 4월 18일(음 3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인간으로서 왜 자기를 좀더 보지 못하십니까

어찌 사는 게 고가 아니라 하시는지요

문) 저의 인생에서 즐거운 건 잠시일 뿐 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힘든 생활의 연속인데 스님께서는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삶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사는 게 고가 아니라 하시는지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것이 고정된 걸까요? 말하는 것이 고정된 걸까요, 만나는 것이 고정된 걸까요? 알하는 것이 고정된 걸까요? 이거 보면 이거 봐야 하고 저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천차만별로 그저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랄결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냐 하면 공했다는 얘깁니다. 초월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초월해서 살면서도 항상 '내가 했다. 내가 봤다.'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돈을 벌었다. 망한 거는 상대방에서 망하게 해서 망했다.' 이러거든요. 모두. 왜 인간이 자기를 좀더 보지 못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도 고정된 고정된 일을 했느냐? 집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저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할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몸뚱이 속에 만 중생들이 지금,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터 형성되고 진화됐는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네 생명과 같이 아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그 몸뚱이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두고 만약에 목이 마르는데 물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잡수신 겁니까?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누어 먹은 것이죠? 더불어 같이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모든 게 작용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니깐 먹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작용을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은 승장이 되니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 주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름과 형상을 보고서 기도를 하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자성이, 바로 자기 주체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몸속의 이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직여가는 걸 다 거기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직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 가져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 주고

죽여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길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격도 있죠.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 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육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걸어들 때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다니시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짙어지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걷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모두 생활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가 없다.' 여러분

의 생각이 모자라서 필자 운명이라든가 고(苦)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한 거를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침보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힘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좀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만상의 차원, 모든 거를 한번 결부시켜서 차곡 차곡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

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산다는 건 참 의로운 건가 봅니다

문) 산다는 건 참 의로운 건가 봅니다. 결혼할 당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과 자식에게는 서운함만 쌓이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요. 결국 의지할 건 내 마음밖에 없는 걸까요?

답) 우리 인간에게는 오신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속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되는 일만 안 돼? 이런 한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맡겨 놓고 자기밖에,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 비로소 지금 현재에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생활이 과학적이면서도 그렇게 광대 무변한 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한 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자기 집에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게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 '나' 라고 할 수 없는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公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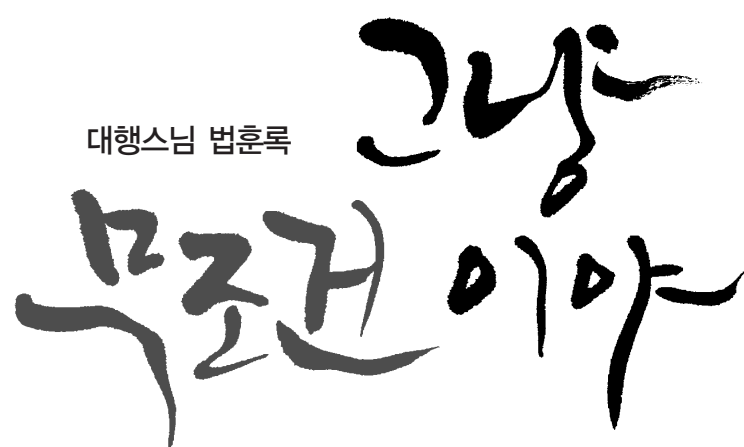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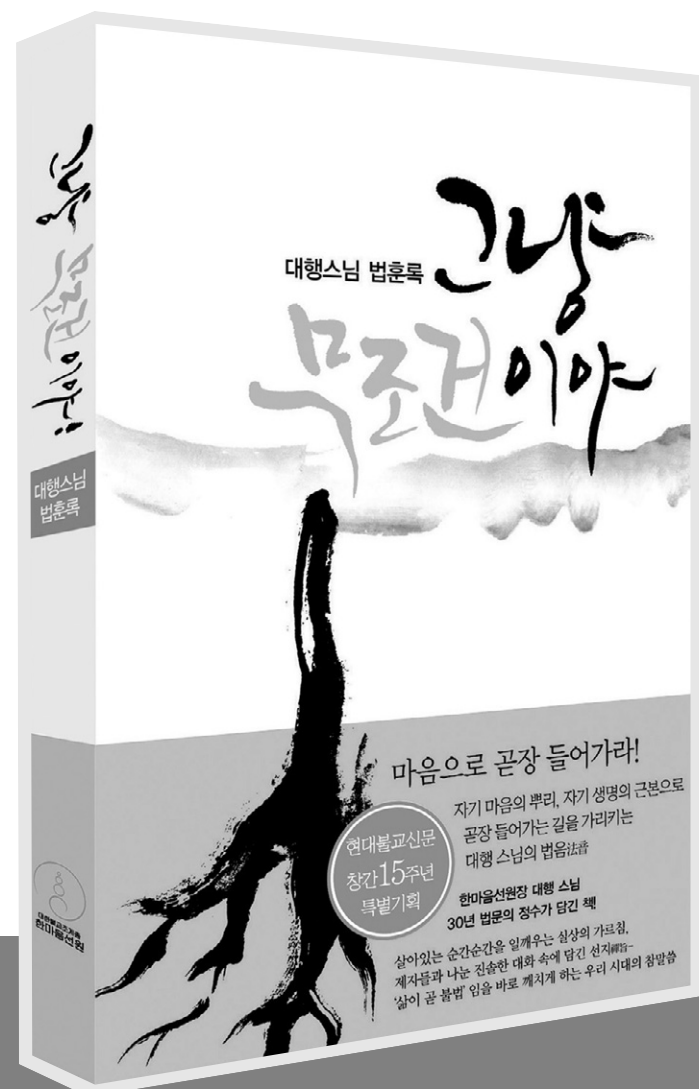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진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오직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패기가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얘기 적이 남니까, 젊었을 때가 남니까, 늙었을 때가 남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수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견디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을,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모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부터 해결 못한다 하고 말려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력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은 슬그머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 버립니다. 녹아버리고 '내가 왜 이력하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사실입니다.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뉘지도 않나."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저 처애라도 치여 죽지 않나." 이런 소릴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는데, 요만한 거 꼬리표 하나 붙여 놓고 요만한 전등 하나 켜 놓고 그걸 인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될 일입니까? 한 생각을 잘하면 그게 인등을 백 번 천 번 켜 보다도 더 위력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밖으로 써,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이견 자기발전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인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내 보배를 두고도 써먹지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니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 안에 소중한 보배가 있음을 믿고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극락과 지옥이 내 한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육신의 병을 마음의 힘으로...

문) 요즘은 마음의 힘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육신의 병을 마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 예를 들어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육식동물처럼 기다리고 있어, 즉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 이게 탄 소 떼도 들

어실 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전부 소 떼가 다 그냥 물에 들어서 그 저 악어 잔羹이고 머리고 다 딛고 그냥 비호같이 그냥 건넌답니다. 그거와 같이 내 마음도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생각할 때에 '아이구,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런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래요. 그리고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일입하고 관하면 싱글싱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이를 외려 후사를 사키면서 병을 듣게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

알았으니까, 내 자성으로 하여금 자유자재하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정된 것도 없고 찰나 찰나 그냥 화해서 돌아가고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고가 불을 자리가 있고 병이 불을 자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망가지면 패차시키고 다시 차를 꺼내면 되고, 격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깐 오직 자기가 그냥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 미워요

문)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 저의 직속 상관이 다른 동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는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미워집니다.

고 화목하게, 좀더 이게 다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가 다 말려 봐요.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고 그리고 지켜봐 보세요. 차차 화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아니 되는 게 없는데 그 집념 있게, 물러서지 않고 진짜로 믿어야 될 텐데 진짜로 믿지 않아요. 안되면 '아이구! 이것도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지 판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 이거거든요.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 있는 자체가, 한 덩어리가 지금 자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 버려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아닙니

부터 조복을 받아야 모든 게 그 조복 받은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모두 남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구제하고 보이는 중생도 구제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매장이 좋은지 화장이 좋은지...

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화장을 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여기시는지요?

답)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여여함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아니, '이게 좋으나 저게 좋으나?' 하고 물어요. 아,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게 법인데, 그냥. 지금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는 땅이 좁아서 그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매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이 몸뚱이는 사대로 흩어지게 마련인데 그게, 그게 있으면 뭘 하고 물어 놓으면 뭘 합니까? 아주 불을 살라서 깨끗하게 치워 버리는 게 아주 깨끗하지, 매장을 하면 그 의식이 삼촌이 있다고 하죠. 삼촌이 있어서 묘지에 하나 있고 자기 집에 하나 있고 흔백이 또 판 데로 천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삼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이 애착, 착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 자기 몸을 떠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 일기천천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왔는데 너 아는 척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 아니, 눈에 보아야 될 아는 척을 하죠. 들리길 해야 아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 귀찮게만 하고 다닌단 얘기도.

그러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왜 그렇게 남을 귀찮게 굴게끔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매장이고 뭐 화장이고 난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그 탑을 해 놓고, 하도 매장은 사람이 많아서 그 불교 믿는 우리 신도들만 글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탑을요. 탑 하나만 사면 3대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돌려 가니까 대대손손이 그 탑 하나 가지면 뭐 땅 또 만들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놔거든요. 그래서 그 탑 하나만 하면 산소 걱정할 게 없죠. 그냥 화장시켜서 그냥 다리니에다 이렇게 써서 거기에다 위패하고 갖다가 모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 3대만 넘으면 또 소지해 버리고 말입니다.

어때요? 땅도 좁은데, 사람이 상황대로 사는 거지, 억지로 끼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려가려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산자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이 세상은 철저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빼어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고 죽여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거리는 것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깁니다. 고가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한 백지장 사이와 같이 확 이렇게 그 도리를 알면 고가 따로 있나?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깐 고(苦)지, 고가 없다면, 고라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라, 고라, 고가 있다더라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이름 그걸 가지고서 집착을 하나 진짜 고가 되죠. 그게 집착만 벗어나면, 그 이름을 가지고 탓을 안 하면 그냥 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고다, 멸한 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여여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내 자성이 말입니다. '내 자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는 얘기도. '정신계의 내 정신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예요. '내 자성으로 하여 내가 여여하게 살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거예요. 또 내 불성으로 하여금, 내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인공으로 하여금 내가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한마음으로 돌려보려 하지만 막상 보면 그 마음은 심판팔천 리 달아나 버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할까요?

답) 우리가 뿌리는 한 뿌리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죠. 나무 이름이 다 각각이듯이 말입니다. 근본은 둘이 아니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천차만 별이다 이겁니다. 마음 씩씩이가. 상사가 그런다면 직원들에게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이거다 이거다 하고 전기가 가설이 돼 있듯이 그 마음과 마음이, 나는 바로 이 회사의 직원이고 저 사람은 상사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설이 된 거다 이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위치를 누를 때에 '에이! 저기도 볼 줄 들어오게, 한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대로 놀러 오지마는 보이지 않는 데서 스위치 누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저렇게 싸우지 않

까?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모두 그 보이지 않는 데 연결이 되고 가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생각을 한다면 전파가 통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모두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을 누가 해결해 주나요? 누가 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빼어가는 일도 없고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이 그 걸 대치하고 나가야 됩니다. 길에 가다가도 누가 지독하게 싸우면 '저거 싸우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한생각 하고 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왜 애길 하느냐 하면 모든 점에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벌써 보는 순간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러니 한 사람이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중생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받침
一人一燭 연꽃밑받침양초



New

신제품 폭룡 초



임진년은 흉룡의 해입니다
흉룡초로 소원성취기도하십시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받침 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받침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밑받침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